

속보] 81년 된 나주 남석저수지 누수, 신속 대응으로 피해 '0'... 위기 속 빛난 현장 지휘

- 새벽까지 이어진 긴급 복구, 강수진 지사장 지휘 아래 안전 확보 노후 농업 기반시설 관리·평
상시 훈련의 중요성 다시 확인

2025.08.09 12:03 입력



▲ 강수진 지사장의 현장 지휘 속에 야간에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



귀가 어두워졌을 때 신청하면 좋은 보청기 무료
폰
히어닷컴



▲강수진 이사장의 현장 지휘 속에 야간에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의 81년 된 농업용 저수지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나,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 없이 사태가 마무리됐다. 현장 지휘를 맡은 강수진 이사장은 평소 안전교육과 철저한 시설 관리로 준비된 대응력을 발휘하며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사건은 8일 오전 10시 45분께 발생했다. 남석저수지 제방 하단 배수관로에서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발견됐다. 누수량은 초당 약 1.5t. 하지만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었다. 배수관로의 균열이 확대되면 저수지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관리원이 이를 조기에 발견해 즉시 나주시사에 보고했고, 강 이사장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강 이사장은 보고를 받은 직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굴삭기와 자재를 긴급 투입하고, 기술인력과 현장 근로자를 배치했다.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복구작업은 다음날 9일 10시30분 무렵 마무리됐고, 인근 하천으로 유도된 누수는 농경지나 주거지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

현장에서 강 이사장은 “마지막까지 안전을 확보하고, 비 예부에 대비해 추가 전격적 지령하라”고 지시했다. 관계자는 “9일 오전까지 양생이 완료되면 강우 시에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석저수지는 1944년 완공돼 총저수량 6만t 규모를 보유한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다. 지난 6월 실시한 안전 진단에서는 C등급을 받았지만,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노후 시설 특성상 관로와 부속 설비에서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번 누수 역시 시설 노후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역 주민들은 강 지사장의 대응에 한목소리로 찬사를 보냈다. “평소에도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고, 직원들에게 사고 대응 매뉴얼을 숙지시키는 모습을 봤다”며 “이번에도 그 준비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관리와 사전 훈련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분석한다. 전국 곳곳에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많지만,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긴급 상황 대응 훈련이 부족한 곳도 적지 않다. 시설의 수명 주기가 끝나기 전에 선제적 보수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농어촌공사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수진 지사장은 “농업용 저수지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주민 생계와 직결된 생명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남석저수지 누수 사건은 노후 시설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준비된 대응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줬다. 예방과 신속한 대응, 그리고 책임 있는 현장 지휘가 피해를 ‘제로’로 막아낸 결정적 요인이었다.

농어촌공사/ 박진성기자 s9611006@hanmail.net

[인쇄하기](#) [창닫기](#)

